

## 광주시립오페라단 설립싸고 찬반 양론

음악계, 창단 추진 가시화  
 찬 "수준높은 오페라 관람기회"  
 반 "열악한 재정 예술단 난립"

최근 지역 음악계를 중심으로 광주시립오페라단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쪽에서는 지역민에게 '종합예술의 꽃'으로 불리는 수준높은 오페라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연 예술 분야 전반을 발전시키고 문화도시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열악한 광주시 재정을 고려할 때 무작정 시립예술단 수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강하다. 현재 광주는 서울을 제외하고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시립예술단을 보유하고 있다.

◇'종합예술의 꽃' 오페라 공연 필요 = 지역 음악계는 지난달 문화·인문·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55명 규모로 광주시립오페라단 창단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위원장 임해철 호신대 교수)를 발족했다. 추진위는 오는 15일 3개 민간 오페라단과 공동으로 '텐 테너 공연'을 기획하는 등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광주시와도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측은 창단 효과로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 다양성 제공 ▲광주 국제적 브랜드 가치 상승 ▲무대 미술 등 관련 분야 동반 성장 ▲지역 출신 음악인 공연 기회 제공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빛 소리 오페라단 등 3개 민간 오페라단이 고교분투하고 있지만 열악한 여건으로 장기적 비전 제시 및 콘텐츠 개발에 한계가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추진위 측은 예산을 고려, 상임단원 대신 작품에 따라 출연진을 뽑는 '객원단원제'를 유지하고 상근 직원들 예술감독과 사무장, 사무원 등 3명으로 최소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추진위는 5~6억원 규모로 일년에 1~2개 작품을 올릴 계획이다. 현재 광주의 경우 교향악단이 40억원, 소년소녀합창단이 3억 8000만원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음악인 A씨는 "민간 단체가 있지만 불만만 작품이 거의 없고 오페라단의 상

황도 점점 나빠지는 걸 감안하면 수준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립오페라단 창단은 바람직하다"며 "단기간 오페라단을 위촉시키는 일은 없으면 한다"고 말했다.

◇열악한 시 재정...선택과 집중해야 =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재 광주시립예술단체는 7개로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많다. 부산은 7개 단체지만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는 청소년교향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을 포함하고 있다. 인천과 대전은 4개 단체에 불과하고 대구 역시 6개 단체를 운영중이다.

광주는 '양적'으로는 우월하지만 예산과 운영 등 '질적'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현재 7개 시립예술단 단원은 총 297명이며 예산은 141억원 수준이다. 이 중 인건비가 117억원이고 공연 예산은 22억원에 불과하다. "불만만 작품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청소년합창단을 포함, 4개 단체를 운영하는 대전의 경우 운영비는 130억원으로 광주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부산은 153억원, 인천과 대구는 142억원과 144억원을 쓰고 있다.

단체별 상황도 열악하다. 교향악단의 경우 단원이 84명으로 부산(99명), 인천(96명), 대구(99명), 울산(95) 등과 비교하면 쪼들다. 최근에는 결원이 생겨도 곧바로 충원되지 않고 있다. 합창단과 국악관련악단 역시 단원 수가 적다.

현재 오페라단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서울과 대구 두 곳뿐이다. 대구는 1992년 오페라단을 창단했고 2013년 오페라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관련 3개 단체를 묶어 '대구오페라재단'을 출범시키는 등 특별한 경우다.

여기에 예술감독 자질, 노조 문제, 작품 수준 등 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이 터져나와 혁신 TF팀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라 시립예술단을 바라보는 시선도 굵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문화계 인사 A씨는 "예산이 넉넉하다면 다양한 단체를 만들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광주는 그럴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 단체들을 실속있게 운영하는 데 힘을 쏟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열린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선포식'이 끝난 뒤 김현웅 법무부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김희관 광주시교감장, 김해수 광주시교감 등이 거리캠페인 행렬을 환송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배려하는 교통문화 'SOS' 광주서 출발

조선대서 실천운동 선포식... SNS 1000만명 참여 릴레이  
 김현웅 법무부장관 "전국 참여형 문화운동 확산시켜나갈 것"

운전자는 보행자를, 대형차는 소형차를 배려하는 교통문화 실천운동이 광주에서 시작됐다. 이 운동은 광주를 발원지로 전국민의 참여를 끌어내 전국화 한다는 게 목표다. (관련기사 2면)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와 법무부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는 지난 2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의 하나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대회사에서 "광주는 문화수도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교통사고율 1위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어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이 그 어느 곳보다 시급하다"며 "광주에서 시작해 전국적인 참여형 문화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광주는 배려하는 교통문화 실천운동의 발원지로서 대한민국 문화수도·질서수도로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광주지검은 광주시,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범 시민 참여형 문화운동으로 'SOS(시작해요, 오늘부터, 서로 배려를)' 캠페인을 시작한다. 먼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한다. 루게릭병 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유행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같은 시도가 이뤄진다. 광주에 고 학생들이 고안한 동작과 구호를 김 장관이 1호로 재연해 페이스북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지목 받은 사람(기관)은 2주 안에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페이스북에 참가를 인증해야

한다. 1000만명을 릴레이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실천운동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개그맨 남희석씨와 배우 서우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남희석씨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등 사소한 것부터 지키자. 홍보대사로 배려 교통문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실천사항으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부모·형제처럼 생각한다', '대형차는 소형차를 배려한다', '보복운전 근절하고 양보운전 문화를 적극 실천한다', '임신부·어르신·장애인은 우선 배려한다' 등 10가지를 다짐했다.

또 실천운동 홍보 스티커, 실버운전자 배려 스티커, 교통약자 이동차량과 장애인 전용 휠체어용 안전 반사지 등 붙인 차량도 곧 보게 된다. 30초 홍보 동영상 공모전, 광주시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관리하는 전광판, 버스정류장 안내 모니터 등을 통해서도 '배려 교통문화'를 알릴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수도권 갈 땐 KTX 올 땐 버스...쇼핑·의료 '빨대효과'



호남선 KTX 개통 6개월  
 ◎ 자본 역외 유출  
 상행선, 하행선보다 5만명 많아  
 광주신세계 역외 매출 1300억  
 광주·전남 원정 진료 34만여 명

지리 '나간' 철도 승객은 각각 135만9116명, 43만3153명 등 모두 179만2269명이었다. 반면 광주·전남에서 '내린' 승객은 132만2430명, 41만9241명 등 174만1671명으로, 5만598명의 차이가 난다. 고속철 개통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호남선·전라선의 승차 인원은 121만8943명, 하차 인원은 121만8564명으로, 그 격차는 379명이었다. 개통 후 6개월 간 5만명 이상의 승객이 타 지역으로 더 이동했다는 것이다. 거주지가 광주·전남인 이들이 다시 고속철 등을 통해 지역 내로 진입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하차 인원 증가분도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역주민이 출장이나 쇼핑, 원정 진료, 친인척 방문 등의 목적으로 과거보다 더 자주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도시교통

전공 최원석 교수는 "고속철 개통으로 쇼핑이나 원정진료 등을 위한 수도권 이동 수요가 늘고, 고속철로 상경한 승객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귀가하면서 빛어진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와 의료시설들은 이 같은 역외 자본 유출이 향후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부유층'의 이탈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올해 광주점 이용 고객의 역외 유출 매출을 1300억원으로 예상했다. 3년 전인 2012년 98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증가세다. 상위 20% 고객이 역외 유출 규모의 75%를 차지하고, 상위 5% 고객의 역외매출 성장률이 올해 15.9%로 예상되고 있다.

<2면으로 계속>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청시모집 | 062)605-1114



KIA 또... 가을야구 좌절 ▶20면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먹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 가라!  
 ■ 일시: 2015. 10. 11(일) 09:30  
 ■ 장소: 모교 운동장  
 ■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 민 수

31년의 역신 30년의 성장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 건강한 우리사회 함께 만듭니다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방법!

작지만 큰 약속을 하나씩 지켜나갈 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웃을 위해 생활 속 예방수칙을 차근차근 실천한다면 더욱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열 수 있습니다

손 씻기는 건강을 지키는 첫 단계  
 비누로 손 씻기,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감염병을 예방하세요

기침할 때는 소매로 가리기  
 기침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수수건·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주세요

응급실은 위험한 환자에게 양보  
 위험한 환자가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이용을 양보해 주세요

병문안 기급적 자제하기  
 병상에는 꼭 필요한 보호자만 병문안은 전화로, 문자로, SNS로 안부인사를 전해주세요

국·피개 덜어먹고 술잔 돌리지 않기  
 함께 식사할 때 국·피개 덜어먹기, 술잔 돌리지 않기로 감염병을 예방하세요

4대 개혁 '100년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개혁,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노동개혁 17년만에 노사정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사정대타협, 우리 아들과 딸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